

# 경제현안 최대악재 “미국 더블딥”

## SERI, CEO의 48.1%가 우려 ... 유럽 재정위기에 중국 경기침체도

국내 최고경영자(CEO)의 50% 가량이 최근 글로벌 경제상황 중 가장 우려되는 악재로 미국의 더블딥(이중 침체)을 꼽았다.

삼성경제연구소가 9월5일부터 9일까지 CEO 2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9월13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, 응답자의 48.1%가 미국의 더블딥을 가장 우려한다고 답했다.

다음으로 유럽의 재정위기 확산(28.5%), 중국의 통화긴축 등 경기침체(15.3%)가 많았다.

미국의 더블딥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가능성이 크다는 응답이 32.9%, 낮다는 응답이 31.5%로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혼재했다.

앞으로 유럽 재정위기의 전개방향에 대해서는 50.5%가 국지적 불안 등 현재의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고 대답했고, 일부 국가가 유로존을 탈퇴할 것이라는 답변은 21.0%, 제도 개선을 위해 유로체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답변은 15.6%를 차지했다.

글로벌 리스크 대응방안으로는 환율 및 재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응답이 26.4%로 가장 많았다.

생산거점 재조정 등을 통한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(24.1%) 및 기존의 수출시장 입지 강화(13.6%), 국내시장 확대 주력(10.8%) 답변도 있었다.

그러나 모니터링 강화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의견도 21.0%에 달했다.

삼성경제연구소는 “국내 CEO들이 해외 경제위기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”며 “기업별로 정확한 전망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”고 조언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1/09/14>